SK가스, 중국 LPG 시장 “노크”

2위 공급기업 CGH 최대주주 등극 ... 신규사업 진출 기회도 모색

SK가스가 중국 2위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SK가스는 CGH(China Gas Holdings)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1월3일 발표했다.

중국 LPG 시장 2위이자 3대 도시가스 민영기업인 CGH는 연간 135만톤의 LPG를 136개 도시에 공급하고 있다.

SK가스는 최대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 4.52%를 확보해 CGH 지분율이 9.74%로 늘어나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SK가스는 LPG 시장에서 양사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함은 물론 CGH가 진출해 있는 중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4>